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23-4호 금동여래입상



금동여래입상

한영숙

마한의 왕궁이 있던 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속 은밀히 내재된 어른 손바닥만한 청동 불상. 연꽃 대좌에서부터 불꽃무늬 광배에 이르기까지 삼천배를 올린 장인의 혼이 시무외인한 부처의 손끝으로 은은히 비어져 나온다. 감은듯 뜬듯 관조반야의 눈빛, 금방이라도 반야심경을 외우다 만 듯 딱 다문 입술에는 삼세하고 화려한 신라인의 기상이, 모든 중생 고통 함께하는 부처의 깨달음이 물려 있는. 천삼백 년 전 그 풍광 그대로 아직도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탁본하고 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며 순결한 가슴이어〉 중에서

한영숙 시인은... 1960년 경북 예천 출생. 2004년 〈문학·선〉으로 등단.

“간선제, 비구니·재가 참여 확대해야”

종단쇄신위,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2차 좌담회

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비구니와 재가자 참여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는 지난 3일 직선제에 이어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간선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조계종 정책특보 덕문 스님이 발제자로 나서 간선제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덕문 스님이 제안한 방안은 현행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총회에서 선출한 10인씩 총 32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비례별 대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구별 재적승 200명 당 1명 혹은 300명 당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교구별 유권자는 각각 47명과 37명이 증가한다.

이어 덕문 스님은 “교구총회가 아닌 산중총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비구 중심의 선거인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구니 선거인단 참여를 최소 20%까지 의무화하고, 재가자의 참여도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간선제 확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간선제 확대 방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성문 스님은 “직선제는 우리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불교적이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간선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재처럼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의 간선

현행 간선제 유지하며

교구선거인단 확대 제안

소수 권력독점 우려도

제 확대는 안된다. 선거운동을 하면 금권 선거나 세력 대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현행 간선제 유지나 축소를 주장했다. 스님은 “재적승이 많은 곳에 선거인단을 더 많이 할애하면 자칫 소수에 의한 권력독점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현행 제도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17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두 번째 순서로 간선제 방안을 논의했다.

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종도들이 정치화된다. 재가자들이 출가자의 갈마에 참여하는 것도 율법에 맞지 않다”며 “사부대중협의를 만들어 공의를 모아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간선제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남 변호사는 “간선제 확대는 선거인단이 약간 증가할 뿐 현행 제도와 근본적 차이는 없다”며

“총무원장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간선제를 채택한다면 상시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직인 중앙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쇄신위는 2차에 걸친 좌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앙총회 전까지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총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 수행 종풍 계승에 박차”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취임법회 봉행

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 도정 스님의 취임법회가 봉행됐다.

천태종은 12월 20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대한불교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 도정 스님 취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천태의 묘법이 이곳에 다시 펼쳐졌으니 여조장생 구제중생 높은 원력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합심해 정진하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천태종은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하나로,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임무도 갖고 있다”며 “수행 종풍 계승, 승려 복지 등 교육·복지·문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모든 것은 총무원장 한 사람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대중 스

님들의 격려와 종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도정 스님께서 천태종의 대외적인 활동 폭을 더욱 넓혀 한국불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원했으며,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도 “천태종이 더욱 융창해 국민들에게 더 큰 용기를 심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천태종은 12월 20일 단양 구인사에서 16대 총무원장 도정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쇄신 마무리위한 인사 단행

18일 조계종 교역직 인사

조계종 총무원과 산하 기관 교역직 인사가 단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새로운 교역직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교역직 인사는 총 8명으로 주경 스님(기획실장), 원범 스님(재무부장), 원학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원경 스님(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성직 스님(불교신문사 사장), 일감 스님(불교신문사 주간), 각립 스님(불교문화재 연구소장), 현담 스님(총무원 사서국장)이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1989년 법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축계를 수지했으며,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산 부석사와 15대 중앙총회의원을 맡고 있다.

신임 재무부장 원범 스님은 1975년 법어사에서 덕명스님을 계사로 구축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선암사 주지와 15대 중앙총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원학 스님은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총회 사무처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는 15대 중앙총회의원과 삼화사 주지로 재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계종 교육원장 현은 스님은 12월 17일 혜명스님을 불학연구소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기획실장으로 임명된 주경 스님이 사의를 표한 조계종 교육위원장은 동국대 교수 종호 스님이 선임됐다.

신종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2월 8일자(874호) 20면 머리기사 ‘유승엽 오카리나 연주자...’ 관련기사 중 “1999년 2월 ‘혜초’ 공연을 기획했다”를 “‘혜초’ 공연에 찬조 출연해 오카리나 연주를 했다”로 바로 잡습니다.

청화淸華 대선사大禪師 열반 1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

- 순선純禪시대 조사들의 사상에 나타난 염불선念佛禪

삼보에 귀의하옵고,

오는 새해 2557년(2013)은 청화 대선사 열반 10주기입니다. 이를 맞아 대선사의 사상을 기리는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순선純禪시대 조사들의 사상에 나타난 염불선’입니다. 순선시대에는 불교사에 있어 달마대사로부터 육조혜능에 이르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조사들의 가르침에 나타난 염불사상 가운데 실상염불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특별기획으로 한국불교학연구의 요람인 동국대 불교대학의 불교학전공자와 국내 권위있는 조사선 박사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청화 대선사의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하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수회 동참하시어 청화 대선사의 사상을 기리고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화사상연구회 회장 무상(성륜사 주지) 합장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일시 | 2013년 1월 5일(토요일) 오후 1시~6시

- 진행 순서 -

제1부 | 사회: 청화사상연구회 부회장 해용스님(광륜사 주지)

- 1:00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1:10 회장 개회사·성륜사 주지 무상 스님
1:20 문도대표 환영사 - 백산문도회 의장 용타르스님
제기대표 축사 - 대안그룹 명예회장 상정 임창욱 거사님
1:30 종단원로 추도사 - 교불총림 백암사 수좌首座 지선 콘스님

제2부 | 사회: 청화사상연구회 연구소장(박선자 교수)

- 2:00~2:30 제1 발표: 조준호(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 3:40~4:10 제3발표: 박경준(동국대 불교대학)
초조달마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6조 혜능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2:30~2:40 토 론: 김호귀(동국대 불교학술원) 4:10~4:20 토 론: 변희욱(서울대 철학과)
3:00~3:30 제2발표: 최동순(동국대 불교학술원) 4:30~5:50 종합토론: 사회·청화불교대학(김영동 교수)
4조 도신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 5:50~6:00 폐 회 사: 청화사상연구회 부회장 해용스님(광륜사 주지)
3:30~3:40 토 론: 손병욱(경상대 국민윤리학과)

步步踏踏念念 唯在阿彌陀佛 보보성성념념 유제아미타불

걸음걸음 소리소리 생각생각 오직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여러분의 참 이릅니다. 마음을 맑르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길게 해서 우리의 본래자리, 고향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삼매법입니다.

- 청화 대선사 법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백산문도회 청화사상연구회

행사문의_ 성륜사 (061-363-0081) / 본원 김무상 (010-3844-5643)